

한라시론



한 동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경제학 박사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다. 200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정한 법정기념일로 부부관계가 가정의 시작이고 사회와 국가의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단위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야기되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이 같은 문제를 되짚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부부의 날, 심각한 저출산에 인구절벽을 우려하며

인구는 그 구성원으로 혼인과 출생, 사망 등 개인의 동태적 사건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각 인구동태적 사건은 경제, 사회, 문화 등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통해 어느 국가이든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정책을 통해 인구와 사회 간의 관계가 상호 유리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 이래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가입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2001년 1.3명으로 집계되면서 초저출산국에 진입하자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대

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1.65명을 한참 밑도는 수치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을 기록한 것이다. 보통 한 국가의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 14년 간 185 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는지, 저출산 문제가 왜 심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정책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꼭 자녀를 가

자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대책의 효과는 갈수록 어렵고 이 때문에 결혼 자체도 기피하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결혼도 안 하는데 출산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문제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더욱이 저출산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향후 경제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기혼자들 중심으로 한 양육비 지원 등의 단기적 처방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출산을 꺼리고 실제 포기하게 되는 사회구조와 문화,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사회시스템을 개혁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

생활방역 전환,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제주도가 20일부터 '제주형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지 두 달만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으나 제주도는 황금연휴 때 관광객이 대거 입도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제 제주도는 19일 도민사회의 피로와 지역경제의 영향을 감안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주형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겁니다. 다만 도서관 등 공공시설 개방 여부는 앞으로 1-2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항과 항만 특별입도절차는 현행대로 일정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과 독거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에 들어갑니다. 관광분야는 밀집·분산 등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와함께 민관군 합동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는 일제 방역소독의 날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종식된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비록 제주에서는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자 다소 둔화된 것뿐 아니라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더욱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지만 결코 방역의 고삐를 늦추선 안되는 이유입니다. 자칫 방심할 경우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편집국 25시

그들의 바닥



강 다혜
행정사회부 기자
dhkang@ihalla.com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바닥인거야." 고시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말했다. 큰 부족함 없이 살다 사업 실패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누구나 바닥이 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들켰을 때, 인생이 이렇게나 망가질 수 있을까 좌절하는 순간. 코로나19로 시골벽적하던 올 초,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을 기억한다. 여성을 "노예"라 부르며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낄낄대던 'h번방'의 남성들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들의 행동에 분노했고, 26만명이 동조했다는 사실이 황망했다. 인간의

바닥이 어디일까 생각해본다. 처절한 실패로 체력과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 시간과 노력으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바닥. 그리고 그들의 바닥. 현실에서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던 '박사'가 사이버 세계에서 군림할 수 있던 건 영상을 구걸하던 이들이 있어서다. 숨어야 볼 수 있는 영상. 인간이 만든 최악의 콘텐츠.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지지는 게 두려워, 거긴 내 바닥이니까. "호기심에 그랬어요." 호기심은 마음이지 행동이 아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연결되려면 의지가 개입한다. 그래서 자신이 호기심에, 쉽게 한 행동이 누군가를, 세상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직면하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한다. 더 만만한 존재를 성적으로 지배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찌질한 존재가 없지않아 바란다. '남자는 다 동물이야'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라는 말에 관대한 사회. 권력만 있다면 얼굴이 까발려져도 무혐의가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라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바닥이다.

뉴스-in

"마늘 수매단가 낮아 농민들 어려움"

자치경찰 학생 대상 캠페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0일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이날 남주고 등 6개교 등 곳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캠페인'을 전개.

캠페인에는 서귀포자치경찰대 학교안전전담경찰관, 교통경찰관, 지역경찰, 주민봉사대 등이 참가해 학교폭력 예방, 코로나19 학교 생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

자치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백균탁기자

제주산 마늘 안정 지원 요청

○ 변대군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이 제주마늘 소비촉진과 마늘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주목.

변 본부장은 20일 유천영 농협중앙회 부회장 주관으로 열린 전

국 지역본부장 화상회의에서 최근 과잉 생산 및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산 마늘에 대해 중앙본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그는 "올해산 마늘 수매가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마늘 수매단가가 낮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고대로기자

축산악취 지역에 냄새저감제

○ 제주시가 축산악취가 심해지는 하절기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미생물제제와 탈취제 등 냄새저감제를 집중 공급할 방침.

이를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93농가를 대상으로 23개 제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부터 희망농가에 집중 공급할 계획.

시 관계자는 "농가에 공급될 제품은 악취발생의 주된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에 대한 냄새저감 성능시험을 거쳐 선정된 제품"이라고 설명. 문미숙기자

첫 선 공익형직불제 현장 의견 주목해야

처음 도입된 공익형직불제가 시 작 단계부터 제도보완 의견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환경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존 쌀·밭작물 등 6개의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갖춘 소농가를, 면적으로 구분해 주는 기본직불금과 기존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된 선택직불제 등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신청 초기부터 한정된 지원대상 때문에 농사를 짓고서도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농민들이 속출, 새로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소유한 지주들이 직불금을 타가는 부정수급 우려도 여전합니다.

최근 읍면동사무소 접수 결과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를 최근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한정된 점 때문에 농사를 짓고도 신청·접수를 포기한 사례들이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시지역 한 읍사무소의 경우 접수 포기한 농민이 10여명에 이르고, 다른 동사무소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해당 농민들은 "그간 농사를 지어도 기존 직불금 수령액이 미미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공익직불제로 연 120만원 받을 수 있다가에 관공서를 찾았는데 불가판정을 받았다"며 불만입니다.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한정 이 유가 제도 개편에 따른 지원 농가 급증과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지만 비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려는 공익형직불제 초기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부고
임택규(주)제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어머니 고부이씨 정화께서 서기 2020년 5월 20일 09시 0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5월 21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22일(금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3층)
장 지: 양지공원 → 금악선영
납 편 임명유
아 들 임택규 며느리 김지영
택진 양선숙
택근
손 너 임수현
가현
단 예빈
※ 연락처 : 임택규 010-6566-3949
임택진 010-3760-5658
임택근 010-4614-5658
김지영 010-4299-394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병구(국가유공자, 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21일
부 인 김 정 생
아 들 문 상 승
문 재
문 미
문 정
문 우
문 회
며느리 김 예 경
김 승 미
사 위 송 병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곡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송순(향년 8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21일
아 들 김 정 근
대 근
재 철
문 김 정 속
사 위
며느리 현 효 순
김 예 영
오 미 선
길 호 인

금매
• 품 목 : 윤석 1점
• 감정가 : 20억원
• 조 건 : 매매 또는 대물교환
연락처 010-4855-6013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